

만남

2020년 5월
통권 184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 박 철 현 미카엘

신부님 칼럼	+ 용서 - 좋은 공동체 만들기-----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특별 기고-----	4
교리	사회교리의 이해-----	7
기도하는 삶	-----	10
레지오 마리에 소개	-----	12
영적 상담	-----	13
나눔	-----	15
축일과 전례	-----	18
공동체 소식	-----	19
지방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5월 기도지향》

❖ 복음화 지향 : 부제

말씀과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충실히 봉사하는 부제들이 온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는 표지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용서 - 좋은 공동체 만들기

하늘나라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돕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인내하고 용서하며 공동체는 따뜻해지고 모든 이가 언제나 들어가고 싶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행전에 그려진 초대교회(사도 2,42-47)를 모범으로 삼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찬례에 참여하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여 궁핍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사도 4,34). 이게 오늘날도 가능할까요? 그 당시는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오시는 줄 알았으니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한 건 아니었을 까요?

어떤 특정 종교단체나 사이비 종교가 그렇게 지내고 가톨릭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사는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찬례를 봉헌하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를 닮은 좋은 공동체의 핵심은 자비와 용서, 즉 사랑입니다. 구성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몸소 실천하신 용서와 자비를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하늘나라와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용서뿐이고, 그 기도를 가르쳐주시면서 덧붙인 말씀도 용서였습니다(마태 6,14-15). 죽음의 힘은 정말 강합니다. 부고는 모든 것을 멈춰 세우고 모두 그 앞에 모이게 합니다. 그것이 희생이라면 그 힘은 더욱 세고 아주 오래 아니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기억되어 전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희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희생으로 봉인하여 증언한 자비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런 힘을 전해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상처 입은 몸으로 제자들에게 붙어 넣어주신 그 숨을 전해 받았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요한 20,21-23).’” 예전에는 못했지만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작은 병균에도 꿈쩍 못 하는 세상입니다. 하느님께서 숨을 거둬들이시면 사라질 세상입니다. 그래도 사랑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좋아함보다는 도움을, 더 나아가 이해의 폭을 넓히고 허물을 덮고 가려주며 용서하는 자비를 하느님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 자비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부활의 신비가 살아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력을 전해줄 것입니다.

<특별기고> 소공동체와 거룩한 독서(정태현 신부님)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보라, 너희 집은 버려질 것이다.”(루카 13,34-35)

1. 현실 진단

우리 본당은 인구 20여만의 중소도시에 속해있다. 교적상 신자 수는 2,300명이 넘지만 오래도록(설립연도는 35년 전) 교적 정리를 하지 않아(사실은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할 수가 없다)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신자가 부지기수이고 주일미사에 참석하는 신자 수만 따지자면 아이들과 중고생까지 합하여 450명 정도이다. 옛날에는 도심 한복판이었으나 아파트 문화 탓에 도시의 달동네로 전락하여 갈수록 빈곤화와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는 이 본당은 주변의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한국의 전형적인 보통 본당이다.

1) 소공동체와 레지오 마리아

우리 본당의 소공동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반모임 실태를 들여다본다. 26개 반이 각각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갖는데, 모두 낮 시간이다. 자연히 숨 가쁜 생활전선의 남녀 교우는 거의 다 빠지고 나이 지긋한 자매님들이 주고객이다. 그나마 몸이 불편해서, 피치 못할 집안 사정 때문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개인적으로 반모임에 참석하는 횟수는 일 년에 반도 안 된다. 반모임은 복음나누기 7단계를 바탕으로 꾸며진 교구의 반모임지에 따라 진행된다.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주어진 복음의 한 대목을 놓고 나눔을 하려니 성서 말씀에 깊이 맞들이기보다는 신변잡담으로 흐르기 십상이다. 본당신부가 채근하지 않으면 이런 반모임이 제대로 유지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반모임과는 달리 레지오 마리아는 조직도 탄탄하고 구성원들의 참여도도 매우 높다. 한 개의 꾸리아 아래에 25개 브레시디움, 250여 명의 단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브레시디움 단원들의 면모를 보면 대부 대자, 대모 대녀, 친구나 이웃, 선후배 등으로 구성되어 유대관계와 친화력이 끈끈하다. 지난주에 우리 본당에서는 레지오 마리아 도입 40돌 기념잔치를 벌였는데 대성황을 이루었다. 본당이 설립되기 5년 전부터 첫 번째 꾸리아 회합이 있었다는 것이다. 본당 자체로 특별 강의를 마련하면 호응이 별로 없지만 레지오 단원 교육이라고 하면 인원 동원이 잘 된다. 하다못해 다른 본당 신축기금 바자회 티켓을 팔더라도 레지오 조직을 이용하면 한결 쉽다. ‘레지오 마리아가 본당신부나 사목회와 상관없이 잘도 굴러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반모임을 매주 가지라고 했더니 그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소공동체는 교회의 기본 조직이고 레지오는 여러 신심 단체들 가운데 하나이니 당연히 반모임에 우선적으로 참석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도 소용없다. 브레시디움 주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건너뛰는 법이 없다. 명절이 닥치거나 본당의 큰 행사가 있어서 제날짜에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날로 시간을 바꾸더라도 반드시 모임을 갖는다. 무슨 모임이든지 한 달에 한 번 갖게 되면 형식에 지나지 않고 친목회 이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그래서 매주 브레시디움도 하고 반모임도 하라고 하니 사는 데 바빠서 도저히 그럴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레지오와 소공동체가 서로 상충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만하다.

소공동체와 레지오의 상충은 시간문제만이 아니다. 책임 간부직의 중첩도 큰 문제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반장들은 레지오 마리에 단장직을 겸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사목회 임원들이고 그 밖의 다른 단체의 간부들이다. 시골 본당에서 활동할 만한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이 서너 개의 간부직을 맡는 것은 보통이다. 결국 타성에 젖거나 과도한 활동으로 맡은 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2) 모임의 장소와 시간

소공동체 모임은 원칙적으로 본당이 아니라 삶의 현장인 소공동체 구성원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파트촌에서는 반모임의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반원들을 불러 모으기가 편하고 쉽다. 반원들이 단독 주택에 픽업픽업 떨어져 사는 시골 본당에서는 부지런히 뛰어다녀야 한다. 반모임의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이를 반원들에게 공지하여 한데 불러 모으는 것이 여간 큰일이 아니다. 반장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금자로 재고 있어요.” 하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격려하지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차라리 본당 회합실의 빈자리와 빈 시간을 이용하여 모임을 갖는 것이 훨씬 간편하다. 또 어려운 살림살이 덕분에 간단한 다과와 음료를 나누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다. 한 달에 한 번 가지는 모임이라면 몰라도 매주 모임을 갖는다면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우리 본당에서는 다과와 음료 비용을 2천 원으로 정하고 다달이 반장 모임 때에 모든 반장에게 지불한다. 소공동체 모임은 인구 밀집 지역인 대도시나, 중소도시라도 아파트 집성촌에서나 어울리는 모임이지 단독 주택이 많은 본당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본당신부들도 많다.

3) 반모임과 거룩한 독서

반모임의 핵심은 거룩한 독서이다. 소공동체에서 반모임을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거룩한 독서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거룩한 독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반모임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그런데 반모임의 거룩한 독서는 남아프리카에서 개발된 룬코의 형식에 따라 복음나누기 7단계로 진행된다.

현재 각 교구 반모임에서 시행하는 복음나누기 7단계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① 성령께서 오시기를 청하는 기도를 바친다.(두세 사람 정도 차례로 짧은 기도로 바친다.)
- ② 한 사람이 성서 본문을 천천히 읽는다.(5분 정도 침묵한다.) 다른 사람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는다.(들을 때에는 등장인물, 움직임, 동사에 특히 주의를 기울인다.)
- ③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세 번씩 소리 내어 기도하듯 외친다.(외치는 사이에는 잠시 침묵을 지킨다.)
- ④ 다시 한 번 성서 본문을 읽는다.(5분 정도 침묵하며 이 구절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특히 그 메시지를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묵상한다.)
- ⑤ 마음 안에 들려온 말씀을 나눈다.(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것을 반원들과 함께 나눈다.)
- ⑥ 침묵(반원들과 함께 나눈 것에 대해 잠시 묵상한다.)
- ⑦ 각자가 기도를 짧게 바친다.

이 7단계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은 ‘너무 고급스럽다!’이다. 여기서 요구하는 묵상 수준은 가히 수도자 급이다. 시골 본당의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것을 그대로 따라 하기란 무리다. 앞뒤 문맥이 단절된 복음을 놓고 세 번씩이나 낭독하고 그 사이마다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며 묵상하라니 거룩한 독서가 이렇게 어려워야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에 다가가고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겠는가? 즐거운 거룩한 독서가 아니라 고역이다. 형식은 간단하고 내용은 알차야 한다. 나눔이 부담스러워서 반모임에 나가기 싫다는 사람도 많다. 또 나눔 시간에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고 이를 반모임 밖으로 유출시켜 말썽이 일어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래서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지 않으려고 성서 본문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이나 메시지만 나열하기도 하고, 아니면 성서 말씀과 전혀 관련 없는 뉴스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끝나는 경우도 많다.

나눔 시간은 자신을 선전하거나 강의·토론·잡담 등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전달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눔으로써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다. 바오로 사도가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 말 그대로이다. “내가 여러분을 애타게 만나보려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에게 힘을 북돋아주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피차의 믿음을 통하여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로마 1,11-12).

46. 노인문제와 사회교리

노인문제는 개인과 사회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명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공동체와 사회가 도움으로 함께해야 합니다. 어르신들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호아킨 피닉스는 “서로 서로를 지원하고, 과거의 실수를 통해 서로를 무시하기보다는 교육을 하고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게 바로 인류애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고령화 문제의 해법은 연령차별주의를 넘어서선 돌봄과 포용의 실천입니다. 노인은 젊은이를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젊은이는 노인을 존중하고 지혜를 배워야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 존중과 포용의 구체적 방법은 가족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진정 사랑과 선의(善意)의 가족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는 가톨릭 사회교리가 추구하는 건강한 사회의 본질이자 공동선의 실현입니다. 공동선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선익(善益)과 온전한 인간발전의 상태입니다.(『간추린 사회교리』 165항)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이 새로운 사태에 대해 우리는 평화와 선(善)을 갖고 마주해야 하며, 사회보장제도만으로 채워질 수 없는 무형의 가치를 지향하며 타자에게 인도된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 노년의 희망은 사회적 차원의 연대와 공감, 공동체적 실천을 요합니다. 가족이 돼 주고, 공동선을 위해 실제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결국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이들 것인가’를 묻습니다. 이제 실천의 영역으로 타인이 아닌 내가 들어섭니다. 노화는 우리가 어찌 하기 힘든 하나의 벽이자 도전입니다. 그 벽은 우리가 그 안에 갇혀 도무지 어찌할 수 없기도 하고, 우리를 갈라놓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용기 있게 맞서 함께 싸워야 합니다. 싸움의 방법은 겸손과 온유, 감사와 사랑입니다. 만족스러운 노년기는 개방적인 마음으로 노화를 바라보고 접근할 때 주어집니다. 현명한 나이 듦이란 과거를 성찰하며 뭔가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해결에 있어 철저한 위생관리와 함께 사랑 담긴 상호 포용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나이 듦에도 사랑이 담긴 삶에 대한 갈망, 사랑과 평화가 담긴 가치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 안에서 완성을 얻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다른 인간과 더불어 다른 인간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진리는 그저 인간이 다양한 차원의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실천을 통하여, 기존의 사회생활에서 발견되는 의미와 진리, 곧 선을 끊임없이 추구하기를 요구한다.”(『간추린 사회교리』 165항)

47. 대화가 필요한 사회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전세계적인 극찬을 받았습니다. 봉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요즘 들어 우리 사회를 보며 서로에 대한 예의 문제와 인간 존엄에 대한 문제들을 다룬다고 생각하고 기생, 공생과 상생이 거기서 갈라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영화는 인간 사이의 갈등, 혐오, 무관심과 증오라는 현실과 그 결과인 비극적 파국을 묘사합니다.

분명 사회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해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해법을 위해 냉정하고 정확한 진단도 필요합니다. 개인주의, 자본주의, 무한경쟁과 과도한 입시 및 취업경쟁이 만연한 한국사회는 적어도 경쟁과 도전이 많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에게겐 위로와 공감의 절박하고, 치유와 재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피곤 사회에서 혼밥, 혼술 문화가 인기인 것은 바로 그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반대로 풍요롭지만 각박해진 사회는 어느 순간 대화와 공존이 요원해지고 대립과 갈등이 늘어났습니다. 적대적 권리주장들이 횡횡하고, 세대 간의 문제들도 상대에 대한 날선 책임 추궁과 비난으로 치달기도 합니다. 아마도 대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회분위기와 함께 대화에 익숙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우리들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가톨릭 사회교리는 복잡하고 광범위한 사회문제에 대해 신앙인의 참여와 관심을 요청하는데 그 방법은 바로 대화입니다. 상대방을 적(敵)이 아닌 동반자, 협력자로 바라보며 상생과 화합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과 어르신들이 겪으시는 어려움의 본질은 문화와 인식의 차이,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비롯되지만 본질적으로 서로 간 이해와 소통의 부족이 근본 원인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상호 이해와 소통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대안과 실천을 논해야 합니다. 고령화 사회를 어떻게 잘 맞이하고 세대 간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방법은 서로 올바르게 대화하기입니다. 차이와 벽을 넘어 대화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경청, 평화에 대한 갈망, 용서와 화합, 약자에 대한 우선적 관심이 녹아 있는 올바른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그럴 때 어르신들에게도, 우리 사회에도 희망이 솟습니다. 이제 우리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평화를 전하는 신앙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가톨릭 사회교리는 사회 질서의 복음화를 위한 교회 안의 다양한 은사에 알맞은 성소를 재발견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이 세속적 차원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 문서는 진심으로 인류의 선익을 열망하는 모든 이와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간추린 사회교리』 10항)

48. 그리스도인의 평화

우리 사회에는 온갖 형태의 사회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도 그런 사회문제에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 종교가 사회문제에 관여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왜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거지?”라고 묻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사회문제를 대할 때 신중하게 대처해야 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관심이나 방관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내 자신이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겪었다고 상상해보십시오. 기다릴 시간이 있을까요? 나의 삶이 바쁘고, 남의 일이니까 우리는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깊은 관심과 연민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나의 회심도 이뤄야 하고 동시에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도 얻어야 합니다. 나만큼이나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영성(靈性)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노동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어떨 때는 비난과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수많은 이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잘 바뀌지 않는 현실도 있음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급기야 무기력해집니다. 불의한 현실이 바뀌지 않아 실망합니다.

그런 실망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의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진심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평화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이는 무엇보다 몸소 하느님의 평화를 드러내야 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가장 어려운 투쟁일 것입니다. 선함과 평화로운 방법을 버리고 복수와 힘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강렬한 유혹이며, 심판과 단죄는 쉬우나 용서와 화해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평화를 통해 평화를 이뤄야 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일은 하느님의 일이자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죽음과 폭력의 악순환이 사라지고 용서와 화해가 샘솟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평화입니다. 이제 그 평화를 위해 우리의 희망을 떠올립시다. 우리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 하느님을 신뢰하고, 기도를 통해 평화를 이루는 일을 지속할 때 그 사람 안에 평화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평화가 이뤄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마태 6,12) 이 이중의 화해로써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예수님께서 참 행복에서 선포하신 말씀처럼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간추린 사회교리』 492항)

★ 감곡 매괴 성모 순례 성지(김한솔나 리드비나)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어렸을 적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나들이를 떠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어릴 때 부모님과 동생들과 함께 이곳저곳 여행을 많이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독 부모님과 함께 간 곳 중에서 기억에 많이 남는 곳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에 위치한 ‘감곡 매괴 성모 순례 성지’(옛 장호원 성당)입니다.

이곳을 처음 방문했던 때는 제 기억에 초등학교 3학년이 10살 무렵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어렸기에 순례성당이 어떤 곳인지도 몰랐고 엄마는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 성지에서 열리는 기도와 찬미의 밤에 참여하기 위해서 대전에서 1시간가량 저와 동생들을 태우고 성지를 다니셨고 저와 동생들은 아직 어렸기에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프로그램(묵주기도부터 미사 그리고 성시간까지)을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많이 칭얼대고 지루하다며 얼른 집에 가자고 보채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매년 서너 번씩 성지를 방문하셨고 제가 중학생 즈음에는 종종 아빠도 함께 온가족이 성지를 방문했습니다. 어떤 때는 엄마가 김밥을 맛있게 싸서 미사가 시작하기 전에 성지에 있는 널찍한 벤치에 앉아서 가족들이 모두 앉아서 도란도란 성지의 예쁜 풍경을 배경 삼아 김밥과 컵라면 그리고 저와 동생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먹으며 조금은 불만이 사라져 가며 점점 성지를 방문하는 일이 즐거운 나들이로 바뀌었습니다.

감곡 성당에는 초대 본당 신부님이었던 임 가밀로 신부님께서 프랑스 루르드에서 제작하여 1930년 대성전 건립 당시 제대 중앙에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매괴 성모님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엄마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품이 그리우실 때마다 이곳 성지의 성모님을 찾아 성모님의 사랑과 은총을 많이 느끼셨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엄마가 저희 삼 남매를 키우면서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댔던 곳이 마땅치 않아서 성지를 방문해 미사를 드리고 성모님께 기도하고 청함으로써 성모님의 위로와 큰 힘을 받고 왔을지 그리고 그때마다 엄마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하셨을지 제가 조금씩 크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학을 나오기 바로 전에 성지에서 미사 반주와 특송을 봉헌을 하였는데 그때 모셔온 조그마한 매괴 성모님은 유학 생활 내내 제 방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바쁜 생활 중에 이따금씩 가족들과 감곡 성지를

방문했던 기억이 자주 떠오릅니다. 저희 엄마께서 항상 성지에서 저희를 위해서 간절히 한 기도와 사랑 때문인지는 몰라도 가족들과 성모님 성지를 방문했던 것은 제 어릴 적 기억 속에 가장 행복하고 사랑이 가득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곡의 초대 신부님이셨던 임 가밀로 신부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으로 글을 끝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만나기 전부터 사랑했습니다.”

★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허명자 가밀라)

”낚시 바늘에 걸려 꿈틀거리는 지렁이를 바라보며 두 마리의 물고기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동생 물고기가 하는 말,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저 지렁이를 먹으면 큰일이 난데. 저 지렁이는 긴 줄에 연결되어 있어서 저것을 먹는 순간 끌려 올라가서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스럽게 죽는다는 거야.”

그러자 형 물고기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도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지만 믿을 수 없어. 너는 불이란 걸 본 적이 있어? 그건 상상에 불과해. 실제 그런 일을 당한 친구 물고기를 본 적도 없잖아. 나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아.” 결국 형 물고기는 지렁이를 삼켜버렸고 둘은 다시 만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믿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럴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고 마지막이 되는 경우에는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른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으면 좋으리라.



혁명자(가밀라) 꾸리아 단장님의 레지오 소개

❖ 레지오 마리아란 무엇인가?

‘마리아의 군단’이라는 뜻을 지닌 레지오 마리아(Legio Mariae)가 창설된 것은 1921년, 빈첸시오회 회원으로 활동하던 아일랜드 청년 프랭크 더프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빈첸시오회 활동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영혼을 구하는 복음선교’에 투신할 목적으로 모임을 만든 것이 시작입니다.

첫 모임 이름은 ‘자비로운 성모회’였으나 ‘성모님의 도움에 힘입어 교회가 벌이는 싸움의 최전방에 서는 복음화 첨병이 되자.’는 뜻에서 이후에는 ‘레지오 마리아’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설립 첫해 4개의 브레시디움에 불과했던 레지오 마리아는 전 세계 2700여 교구 중 2300여 교구에 33만여 개의 브레시디움을 두고 있으며, 1300여만 명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레지오 단원이 된다면?

- 1) 개인의 성화를 통해 구원받는다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 2) 복음화 활동을 통해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이끕니다.
- 3) 주님의 사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보람 있고 감사하는 나날을 만듭니다.
- 4) 기도와 공부화 활동을 통해 굳건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 5) 성모님의 군사로서 선종 때 레지오식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 6) 매년 위령성월에 위령미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7) 성령님과 성모님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8) 사목자의 관심 어린 사랑과 강복을 받습니다.

❖ 협조단원의 기도

전 세계에 걸친 레지오 사업과 떼세라에 대한 영혼들의 구원사업을 위해서 바치는 기도로써 온 세계의 모후이신 성모님의 의향대로 관리하시도록 바치는 기도의 정신은 그만큼 아름다운 것입니다.



질문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몸이 안 좋아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아무도 저를 찾아오질 않습니다. 가족들도 제가 무엇을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궁금해 하지 않습니다. 마치 제가 집에 없는 듯 대해서 외로워 미칠 지경입니다. 이제는 방 청소도 해주지 않고 아침상을 차려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때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 이야기하면 아무도 제 이야기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세상을 제가 살아야 할까요?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 소장)

가족들의 무관심 대상이 되었다니 힘드시겠습니다. 그런데 형제님의 글을 보다 보니 형제님에게도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제님의 문제는 소모형 인생을 사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행복행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신념입니다. 이런 신념이 왜 중요한가? 그런 신념을 지니고 살아야 소모형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즉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비난하면서 시간을 탕진하지 않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거나 더 생산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대개 인생 실패자들은 자기 인생의 불행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생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비난하고 자신에게 잘해주지 않는다고, 심지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동네방네 떠돌고 다녀서 집안 망신을 시키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요.’ 혹은 ‘내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입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하는 우울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찾아오는 것은 거지같은 외로움입니다. 이런 생각이 더 깊어지면 이 세상을 하직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형제님이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징징거리며 살다 죽으면 저 세상 사람들은 형제님을 환영할까요? 노상 징징거리며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형제님은 왜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지 깊이 반성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별은 꽃에서 향내가 나지 않으면 가까이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인간적 매력이나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아무도 가까이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징징거릴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내가 필요하게끔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몇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없으면 그립고 아쉬운 사람, 있으나 없으나 그저 그런 사람, 있으면 귀찮은 사람, 없는 게 나은 사람. 어떤 사람으로 대접받을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직장인인데 매주 봉사활동을 하는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다들 대단하다고 칭찬을 하는데, 그 형제님은 봉사를 통해 자기 존재감을 느낀다더군요. 직장에서는 자신이 소모품이 된 듯한 기분인데 봉사활동을 가면 거기에서는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아서 오히려 몸과 마음이 재충전된다는 것입니다.

심리치료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누이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의식이 생기면 자존감과 자신감이 생기고 자기 인생을 더 업그레이드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빗나간 인생길에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님은 직장도 없고 집에서 하는 일도 없기에 가족들이 외면하는 것이니 가족들 탓 그만하고 몸으로 봉사하는 작은 일이라도 찾으십시오. 그리고 몸이 안 좋다는 핑계 대지 말고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는 등 집안일을 도와서 가족들의 마음을 돌리길 바랍니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살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형제님이 묵상할 복음은 마태오 복음 21장 18절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말라죽게 하신 주님의 엄한 말씀을 되새겨 정신 차리고 바른 인생길로 들어서길 바랍니다.

가톨릭 유머

† 운전할 때 듣는 성가

- ※ 시속 80km 일때 ;
주님과 나는 함께 걸어가며...(성가 400번)
- ※ 시속 100km 일때 ;
주 예수 따르기로 나 약속했으니...(성가 29번)
- ※ 시속 120km 일때 ;
주여 이 몸이 당신 뜻을 따르려
대령했나이다...(성가 514번)
- ※ 시속 120km 이상일때 ;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왔나이다...(성가 218번)
- ※ 시속 130 km 이상일때 ;
오늘 이 세상 떠난 이 영혼 보소서...(성가 520번)

하느님,
남동생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갖고 싶다고
기도한 건 강아지예요.

★ 우리의 길동무, ‘성모님’ (정연정 디모테오 신부님)

지금도 제 기억 속에는 어렸을 적에 국어 교과서에서 보았던 서양시 한 편의 내용이 잔잔하게 남아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R. Frost)라는 시인이 쓴 ‘가지 않은 길’이라는 글입니다.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보았습니다. [중략]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피천득 편역)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 어떤 길을 걸었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아니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살기(殺氣)를 내뿜으며 대사제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 보내는 서한을 청하였다.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남자든 여자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이었다.”(사도 9,1-2)라고 하면서, “그러자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사도 9,18)라고 사도 바오로의 회심을 전해줍니다. 여기서 보듯이 사도 바오로는 주님 앞에서도 두 개의 길을 걸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사도 바오로조차도 우리가 결정적으로 따라야 할 유일한 길,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주님의 길을 처음부터 올바르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오로는 하느님 앞에 아주 열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그를 올바른 길을 걷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녀 소화 데레사께서는 “매일 새롭게 ‘작은 길’을 출발하는 것은 진정 ‘사랑의 모험’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무엇인가 힘들게 느껴질 때, 그것이 꼭 그래야만 한다면 하루에 백 번이라도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체험을 살펴보면, 사랑과 기쁨을 주는 데서 작게나마 진보했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나를 잊어야 할 필요를 느꼈을 때 나는 행복했다”고 덧붙이십니다. 이처럼 리지외(Lisieux)의 데레사 성녀에게 ‘작은 길’은 일상 안에서 자신을 조금 더 낮추는 길이었으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느끼며 함께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 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지향을 항상 품고 살아가

려는 영적인 노력은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섬세한 영적 깨달음이 야말로 아주 조금이지만 우리 자신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큰 것에 마음을 쓰기 보다는, 작은 것을 통하여 조금씩 진보하는 기쁨의 체험이야말로 나날이 새로 나는 은총의 충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이미 암브로시오 성인이 가르친 대로, 믿음과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와 이루는 완전한 일치의 영역으로서 천주의 성모님께서서는 교회의 전형이시다.”(‘교회헌장’, 63항)를 인용하시면서, 성모님께서서는 “신앙의 모범, 애덕의 모범, 그리스도와 친교의 모범”이라고 다시금 새겨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섭리하시는 구원의 길에 “예”라고 응답하신 성모님, 산골에 사는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하기 위해 수고스런 길을 나선 성모님, 성부께 순명한 그리스도의 삶 안에 똑같은 방식으로 일치하셨던 성모님은 우리가 택하고 걸어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성모님의 일생은 숨겨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모님에 대하여 참으로 많은 것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루르드, 파티마, 과달루페, 반뇌, 로렛토 등. 우리는 이미 성모님과 관련된 수많은 신앙의 유산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 유산들은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 더욱 더 생생하게 체험되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들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은 “오늘도 내일도 그다음 날도 계속 가야 할”(루카 13,33 참조) 우리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 길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걸어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께서는 “환난도, 역경도, 박해도, 굶주림도, 헐벗음도,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로마 8,38-39) 우리 주 그리스도의 길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다고 담대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언젠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했을 때, 안내를 맡았던 가이드 자매님이 자신을 ‘길동무’라고 소개했습니다. 정말 마음에 와 닿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같이 동행하는 친구. 그 친구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어머니라면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성모님께서서는 우리의 영적 여정을 함께 하시는 길동무이십니다. 성모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앞에서도 결코 주저하지 않고 미련 없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 저희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고, 그 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화되고 성화될 수 있도록 전구해주십시오. 아멘.

❖ 4월과 5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8일	율리아	김 성 은	24일	보나	이 보 나
11일	젬마	이 수 빈	25일	마르코	김 강 김
14일	리드비나	김한솔나			석 성
15일	아나스타시아	박 지 훈			희 진 윤
16일	벨라데타	김(강)신자 최 성 자 오 옥 수	29일	카타리나	이 화 자
				카롤리나	정 혜 경
			30일	소피아	김 계 진
				비아	김 주 희
					이 명 희
					신 옥 희

3일	필립보	김 경 렬 이 수 웅	15일	소피	이 공 종
			16일	요한	홍 경 영
8일	데시데라토	방 은 일	22일	율리안나 율리아	김 효 정 방 수 정
11일	비발도	김 건			
12일	젬마	김(이)정자 방(조)영자			
14일	크리스티안	이 성 원	30일	요안나	윤 석 순
25일	소피아	이 신 자			

❖ 4월과 5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8일	율리안나	송윤아(H)	29일	카타리나	박진경(H) 고희경(B)
11일	젬마 갈가니	이혜경(H)	30일	비오	이제명(O)
12일	비시아	강윤진(H)	30일	소피아	박영희(B)
21일	안셀모	이철민(H)	22일	리따	김남화(B)

3일	야곱	정광하(H) 이태호(O)	14일	마리아 도미니카	이혜진(H)
6일	베네딕타	민병진(H)	15일	니콜	김지희(H)
8일	이다	최이다(H)	15일	소피아	박영희(B)
12일	젬마	김선주(H)	22일	리따	김남화(B)

❖ 5월 성가번호 ❖

5월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3일	55	217	168	244
10일	34	511	197	237
17일	144	210	174	245
24일	찬 양 미 사			
31일	147	218	176	493

❖ 5월 미사 전례 봉사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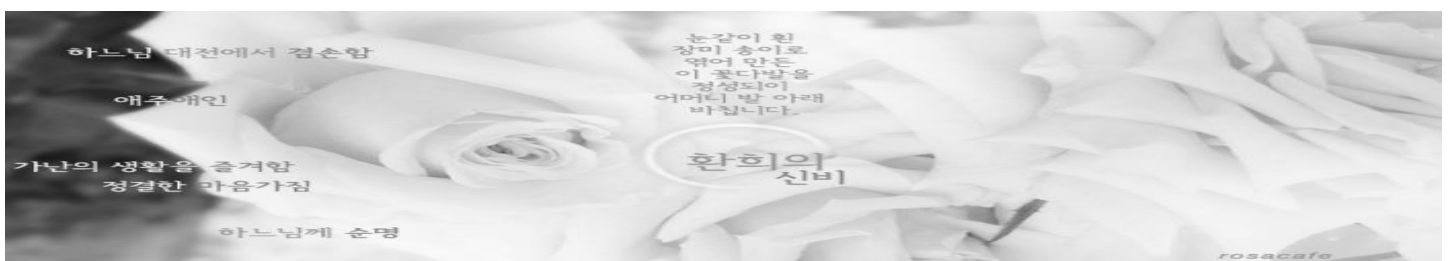
5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커피 봉사
3일	강신행(토마스) 이순자(마리아)	이철우(아우구스티노) 이영희(체칠리아)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최장용(레오)	
10일	백정선(토마스) 이영자(헬레나)	허채열(크리스티안) 허영란(엘리사벳)	주일학교	
17일	청년회	청년회	청년회	
24일	이경구(안스카) 유곡자(아그네스)	배성우(도미니코) 심은희(안나)	주일학교	
31일	한말조(마리안나) 김한솔나(리드비나)		김진호(프란치스코) 최장용(레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5월은 성모님 성월입니다.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며 아름다운 시기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2. 5월의 주일미사에 대해서는 함부르크 대교구의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일미사가 허락되는 대로 공동체가 함께 모여 미사를 봉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5월 한 달 동안은 미사 후에 가지던 친교의 시간이 없겠습니다. 신자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3. 레지오와 꾸리아 회합, 그리고 어버이 합창단 역시 함부르크 대교구의 결정이 내려지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5월 9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던 한인교회 주최 탁구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던 성모님의 밤 행사는 올해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모님의 밤 행사는 없지만 성모님께 기도의 예쁜 화환을 받쳐주시면 좋겠습니다.
5. 5월 소공동체 모임과 연령회 모임 역시 함부르크 대교구의 결정이 나오기를 기다린 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합니다.
6. 5월 31일 일요일은 성령 강림 대축일이자 본당의 날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올해 본당의 날 행사는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사는 평소의 주일과 같이 봉헌할 예정입니다. 이날 Renovabis 2차 헌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7. 5월의 행사는 전반적으로 취소되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라는 위중한 이때에 신자분들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Bremen 공동체 소식

1. 소공동체 모임, 브레멘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445/2431
2. 5월 미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취소되었습니다.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공동체 소공동체를 합니다.
2.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6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청년 소공동체를 합니다.
담당자 : 김명수 마태오 0151 2910-3699
3. 5월 공동체 미사는 힐데스하임 교구의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지침에 따를 예정입니다.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5월 오스나브뤼크 공동체 미사는 오스나브뤼크 교구의 결정에 따라 이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목 협의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부회장	허명자(가밀라)
				부회장	최영숙(데레사)
				전례부장	문경영(아가다)
				총무	이정훈(요나스)
주일 학교		매월 셋째 일요일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령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회장	정정숙(아나벨)
예비자교리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지오 마리아	믿음의 샘 Q.	매월 첫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허명자(가밀라)
	자비의 도우미 P.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강순행(마르가리타)
	평화의 도우미 P.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사랑의 도우미 P. (청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박성아(베로니카)
구역		1구역	반장	최종금(로사)	
			총무	김매자(베로니카)	
		2구역	반장	이영희(체칠리아)	
			총무	정정숙(아나벨)	
		3구역	반장	김형웅(야고보)	
			총무	이경구(안스카)	
		4구역	반장	육종인(베로니카)	
			총무	이순자(마리아)	
청년회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김한솔나(리드비나)	
			부회장	황혜인(율리아)	
요셉, 마리아회		매월 둘째 수요일 오전미사 후	회장	조현영(로사리아)	
			총무	이정은(프란치스카)	
여성 봉사회			담당자	이정옥(크리스티나)	
				김매자(베로니카)	
				권지연(안드레아)	

5월(성모 성월) 중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례 일	단체 행사	비고
1	금	노동자 성 요셉		
2	토	성 아타나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3	일	부활 제4주일, 성소 주일, 생명 주일		
4	월			
5	화	어린이 날, 입하		
6	수			
7	목			
8	금	아버이 날		
9	토			
10	일	부활 제5주일		
11	월	입양의 날		
12	화			
13	수		성모님의 밤 행사는 없습니다	
14	목	성 마티아 사도 축일		
15	금	스승의 날		
16	토			
17	일	부활 제6주일		
18	월	5 18 민주화 운동 기념일		
19	화			
20	수	소만		
21	목			
22	금			
23	토			
24	일	주님 승천 대축일, 홍보 주일	찬양미사	
25	월	교육 주간		
26	화	성 필립보 네리 사제 기념일		
27	수			
28	목			
29	금			
30	토			
31	일	성령 강림 대축일	본당의 날 행사는 없습니다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철현 미카엘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아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박 철 현 미카엘 g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